

정부, AI 방역 연장...지역 오리농장 반발

구제역 차단 연계 내달까지...농장주 "입식 기간 축소로 경제적 피해"

정부의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대책기간 연장 결정에 오리농장들이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AI 방역도 구제역 차단과 연계해 이뤄지는 만큼, 방역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오리농장주들은 입식 기간 축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하소연하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되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애초 이달 말까지 4개월간만 운영하기로 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에 따라 1개월 더 운영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방역 기간 연장에 대한 정부 최종 방침

을 지난 22일 전달받았으며 이날부터 방역 기간도 연장 시행한다.

방역 기간 연장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연계 선상에서 결정됐지만 4개월 동안 AI 방역에 지친 오리농장들과 지자체들은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달 초 오리협화 관련 분야 전문가-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린 AI 특별방역대책회의에서도 구제역을 이유로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역대책기간이 길어지면 오리농장에서는 그만큼 오리를 키울 수 있는 시기가 짧아져 이에 대한 경제적 피해도 우

려하고 있다.

오리 등 가금류의 경우 특별방역대책기간 입식 전 환경성 검사와 출하 후 휴지기 14일 준수, 각종 검사 때문에 줄어드는 소득에 대한 보상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또 도계장에서는 농가의 출하 건수 30%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한 정밀검사 시행으로 도축작업 지연 등이 발생한다.

나주의 한 오리농장주는 "3월에 겨울 철새에 의한 고병원성 AI 검출 사례가 없는 데다 AI는 백신도 없는데 굳이 방역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며 "애초 2월 말까지 하기로 했으면 약속대로 해야지 구제역 때문에 AI 방역을 연장하는 것은 이해하

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방역현장에서 수개월째 업무에 시달린 일선 시군 담당자들도 장기간 방역에 따른 인력 운용과 예산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철새에 의한 AI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이 있는 데다 구제역으로 인해 어차피 거점 방역소를 운영 중인 만큼 AI 방역기간 연장이 도움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운영에 따른 오리농가의 부담과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도 지자체도 방역연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지만 혹시 모를 AI 발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다는 방역연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3·1운동의 구호 자유·평등·평화 평화·사랑운동으로 승화시키자"

김희중 대주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이자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인 김희중(사진) 대주교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100년전 3·1운동 구호였던 자유, 평등, 평화를 지금의 우리가 평화와 사랑운동으로 승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김 대주교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역 언론과 가진 특별대담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대주교는 "3·1운동은 비폭력 평화운동이었고 우리 국민이 주권을 되찾자는 강력한 열망의 표현이었다"며 "100년전 3·1운동과 지난 2016년 들불처럼 번졌던 촛불혁명의 공통점은 비폭력 평화운동이었다"고 덧붙였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확실한 사과를 요구했다. 김 대주교는 "외교는 외교대로, 시민사회와 정치인들은 양심적인 일본의 양심적인 사과를 끌어내야 한다"며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하려거든 확실하게 해야지 '언어의 유희'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표현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



도"라고 지적했다.

김 대주교는 올해 남북 관계에 대해 '희망적'으로 진단했다. 2차 북미회담의 진일보된 결과를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 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김 대주교는 최근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방언'과 관련해 "이것은 사람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더욱이 책임 있는 당인사가 방언과 관련 '5·18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미안하다'고 말했다. 관련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고1 교과서 구입비 전액 지원 전남도

전남도는 25일 "전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201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모두에게 교과서 구입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과서 구입비 지원은 김영록 지사의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이다. 지난해 11월 개최된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이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전까지 지원하기로 협의해 이뤄지게 됐다.

그동안 학부모가 부담하던 교과서 구입비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2019학년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해 무상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전남지역 142개 모든 고등학교의 1학년 신입생 1만 7000여 명이다. 1인당 지원액은 약 10만 원이며,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서 구입비를 학부모의 별도 신청 없이 학교에서 해당 출판사로 직접 지급한다.

또한 다른 사·도에서 전남으로 전입한 학생들에게도 지원하지만 이중 지급 방지를 위해 교육급여 지급 대상자는 제외된다.

전남도 김성호 희망인재육성과장은 "앞으로 다져나가는 중학생 체력학습비 지원 대상 확대 등 전남지역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5일(현지시간) 중국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 앞에서 취재진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탄 전용열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북미 정상 오늘 '하노이 입성'...비핵화 합의할까

실무협상 진척...양국 정상 27일 만찬~28일 수차례 만남 예상

북미정상회담 D-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28일 열리는 2차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나란히 정상회담장인 베트남 하노이에 입성한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특별열차는 지난 23일 오후 5시(현지시간) 평양을 출발해 현재 중국 대륙을 종단해 베트남을 향해 남하하고 있다.

이 열차는 이르면 26일(현지시간) 오전 베트남의 중국 접경지역인 랑선성 동당역으로 들어올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동당역에 도착한 뒤 승용차로 하노이에 입성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오후 하노이에 도착한다. 베트남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오후 8시30분(이하 현지시간-한국시간으로는 오후 10시30분)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으로 도착한다"고 25일 밝혔다.

베트남 외교부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오전 11시 주석궁에서 응우옌 푸 쑹 국가주석과, 정오에는 정부 건물에서 응우옌 쉰 푹 총리와 각각 회담한 뒤 28일 베트남을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2차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비롯한 비핵화 조치와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등 상용조치를 주고 받

전남, 전지훈련지 각광

지난해 7~9월·12~1월 40개 종목 4332개 팀 다녀가

전남지역이 스포츠 팀들의 동계 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전남도는 25일 "최근 지역 곳곳이 전지훈련장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지난해 하계(7~9월)와 동계(12~1월) 전지훈련에 40개 종목 4332개 팀이 다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남을 찾은 동계훈련 참가 연인원은 40만여 명이다. 이에 따른 경제 효과는 321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역별로는 광양, 구례, 영광, 나주, 강진, 목포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됐다. 종목별로는 축구, 태권도, 씨름 순으로 많고, 방문된 지역별로는 경기, 경남, 광주 등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이처럼 전남이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는 것은 겨울철 따뜻한 기후, 적절한 일사관, 비바람이 적은 최적의 자연환경, 국제대회를 치렀던 최고의 스포츠인프라, 신선하고 맛깔스러운 먹거리 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여수의 요트, 순천의 유도, 화순의 배드민턴, 목포, 보성, 강진의 축구, 나주의 사격 등 시군별 특화 종목과 연계한 맞춤형 전지훈련 지원도 한몫했다. 이 밖에도 전남도, 시군 직장경기팀과의 친선경기 개최, 주요 종목별 스포츠브릿지 개최, 야구·농구·축구 등 학교체육 주말 리그전 유치 등도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앞으로 도체육회, 시군과 연계한 합동유치팀을 편성해 '전지훈련 최적지 전남'을 알리기 위한 유치활동을 할 계획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일보 뉴스 NAVER 포스트에서 보세요

오천경매 ★투자에 관한 모든상담★ 최선규(예약필수).010-3605-5000

임야 단독성/지분물건 환영 바로합니다.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회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 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령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아!!!
2박스 구매하신 분께 안달분 더 드립니다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리분들께 권해드립니다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NAVER 유인바이오 배세생활건강 · 검색

010-3598-7080

웰다잉전문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 3월 16일 개강 ●

2018. 2. 4일부터 시행된 "사전명령의료의향서의 홍보, 상담, 등록 등 인식교육을 담당할 "웰다잉전문 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모집기간 2019년 2월 11일(월) ~ 3월 12일(화) 선착순 00명
교육기간 2019년 3월 16일(토) ~ 3주(토) 총 30시간
수강료 25만원, 자격증비 5만원, 교재비 1만원
계좌번호 광주은행 1107-020-709185 대한웰다잉협회 광주광역시부
교육장소 KT빌딩 6층(전남여고 옆), (주)리치골드에셋 강의실
상담전화 ☎ 062)511-0030, 010-5522-9700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명령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대한웰다잉협회 광주지부

★ 본 지부에서는 "사전명령의료의향서"에 대한 홍보, 상담, 등록 등의 업무를 무료로 봉사 하고 있습니다.
★ 기관, 단체의 요청 시 전문강사, 전문상담사를 파견합니다.
· 문의전화: ☎ 062)511-0030 · 팩스: 062)512-8767

NPL과 실전경매(기초)

11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강의 일시 ●
조선대: 3월 8일(금) 주간 3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익의 봄.

임대 공장 소유주는 자본없이도 자기 소유 공장 만들어 드림!

2019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9년 2월 1일(금) ~ 2월 27일(수)
• 교육기간 : 2019년 3월 8일(금) ~ 6월 14일(금)
매주 금요일 주간 3시/야간 7시
• 수 강 료 : 22만원(3개월)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상담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욱
H. 010-9416-1200 T. 062)230-7700~2